

원도 평해군 원서면 상소태리로 개명되었으며,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로 통합되었다가 1971년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2리로 분리, 개명되었다. 마을 입구에 상소태마을을 기리는 황능곤 선생의 노래비가 서 있다. 노래비 옆에 평해 황씨 용계파의 정자인 모원정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78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용궁 전씨(用宮全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모원정(慕遠亭)

온정면 소태리에 있는 조선 말기의 정자이다. 모원정은 평해 황씨(平海黃氏)의 시조(始祖)인 황락(黃洛)의 업적을 현창(顯彰)하고자 1905년에 그 후손들이 종중(宗中)의 뜻을 모아 지은 재각(齋閣)이다. 1906년 낙성(落成)하고 ‘모원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모원정에는 문장과 덕행으로 명망이 높았던 소곡(蘇谷) 황도일(黃道一)과 해헌(懈軒) 황명하(黃命河)가 우유(優遊)한 지조와 광일(曠逸)한 운치로 속세를 멀리한 채 원학(猿鶴)과 벗했다는 고사(古事)가 전해진다. 모원정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이며,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얹었다. 중앙에 마루방을 두고 좌우에는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다.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간을 설치하고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모방한 형태의 평난간(平欄干)을 둘렀다. 정자 주위로는 블록 담장이 둘러 있다.

제16절 소태3리(蘇台三里)[속명 : 가암(河岩)]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마을 앞산(産)인 오태산(五台山)이 있고, 남대천(南大川)의 상류인 소태천(蘇台川)이 흐른다. 서쪽은 선구2리와 인접하고 영굴골하천(河川)이 있으며, 남쪽은 소태2리와 접(接)하고, 북쪽으로 서화산(西華山)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마을의 주산은 서화산이며, 안산은 오태산이다. 마을의 형국을 ‘행주형(行舟形)’으

로 여겨 ‘마을에 우물을 파면 배에 구멍이 생겨 떠내려간다’고 믿어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고 전한다. 마을의 명승지로는 수월암, 옥류천, 부용대, 소하암, 월파대, 하암동헌, 해현천 석, 하서, 유천, 송강 등이 있었으나 온천개발과 제방공사 등으로 모두 훼손됐다.

2. 마을의 역사

나주 나씨(羅州羅氏)가 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산수(山水)가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 여겨 마을 이름을 하루(霞樓)라 하였다. 그 후 1912년에 권자문(權自文) 선비가 이 마을 앞 냇가에 있는 많은 바위가 깨끗한 화강암(花崗岩)으로 펼쳐져 있다 하여 하암리(河岩里)라 개칭(改稱)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소태리(蘇台里)에 속하였다. 마을 초입에 집현전박사 하암 권자문의 유허비가 있다. 하암천변의 자연암반에 ‘하암동천(霞岩洞天)’의 각석문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14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돛대바위 전설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마을 앞에 있는 돛대바위를 절개(切開)하였더니 바위 속에서 학(鶴) 한 쌍이 날아갔다. 이때 지나가는 포수(捕手) 한 사람이 이상히 여겨 바위를 깨트린 안동 권씨(安東權氏)를 활로 쏘아 죽였다는 전설(傳說)이 있는데, 이 포수가 활을 당긴 고개를 살인재(殺人峙)라 한다.

2) 돛대바위

마을 앞에 있는 크고 흰 바위가 마치 배 돛대와 같은 형태라 하여 돛대바위라 한다.

3) 어복골(魚伏谷)

민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계곡(溪谷)을 따라 올라왔다가 갑자기 물이 말라 내려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모여서 죽었다는 전설이 전한다.